천만송이 장미를 그대 품안에

곡성 세계 장미축제

5월 24일~6월 2일

1004종 명품 장미공원에서 '커플 추첨'
레일바이크·증기기관차 타고 추억여행
15㎞ 둘레길 걸으며 청정 자연 속으로~

인류가 수천 만년 동안 사랑의 징표로 삼아온 장미, 그 중에서도 손꼽히는 '명품 장미'들의 향연이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곡성 1004장미공원에서 시작된다. 유럽과 미국에서 들여온 형형색색 1004종의 장미 1000만 송이를 구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곡성 세계장미축제는 '향기, 사랑, 그리고 꿈'을 주제로 한층 아름답게 피어난 더블 딜라이트, 파파 메이앙, 파스칼리, 저스트 조이, 뉴든, 잉그리드 버그만, 보니카, 엘리나, 그레이엄 토마스 등 9가지 독특하고 이국적인 장미와 함께 열린다.

이들 장미는 세계장미협회(WFRS)에서 명예 입상한 14개 품종에 포함돼 있으며, 이 외에도 곡성은 독일의 코르데스 · 로젠유니온 · 탄타우, 프랑스의 메이앙, 영국의 데이비드 오스틴 · 크니스 등 유럽 주요 품종들을 직접 들여와 가꿨다.

장미 숲 사이로 연못과 분수, 유리온실, 야외공연장, 파고라, 미로, 판매장소 등을 조화있게 조성했다. 공원 정문을 통해 들어가 나무 데크를 걷다 보면 장미공원은 물론 바로 옆 섬진강 기차마을 등 곡성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으며,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그늘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곳곳에 아름드리 나무를 심는 등 공원 전반을 관람객 위주로 꾸몄다.

프로그램도 역시 장미와 기차를 연계시켜 다른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함이 있다. 10일이라는 축제기간 안에 열리는 76가지 프로그램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순금 5돈을 선물로 주는 '사랑 커플' 추첨 선발, 장미축제 관광열차 운행, 장밋빛 음악회, 장미 '샷' 추억 만들기, 2013 구곡순담 100살 봄 잔치 등이다.

거기에 추억의 증기기관차, 레일바이크, 자전거를 탈 수 있고, 놀이시설이 있는 드림랜드, 동물농장, 천적 곤충관, 스케이트장, 천문대 등 다양한 시설에서 즐길 수 있다.

장미공원 옆에는 새마을호 객차를 리모델링한 레일팬션이 있다. 23실에 최대 116명까지 수용할 수 있으며, 내부를 편백나무로 꾸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예약이 거의 끝나 반드시 확인해야 숙박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곡성의 명물이 된 섬진강 기차마을 증기기관차는 옛 곡성역에서 가장역까지 10㎞ 구간을 시속 30~40㎞로 달리며, 기찻길 위에 설치된 레일바이크는 곡성군 침곡에서 타 신나게 페달을 밟으면 40여분만에 5.1㎞ 떨어진 가정역에 도착할 수 있다. 축제기간에는 관람객들이 밀릴 수 있어 사전 예약하는 것은 필수다.

곡성군 관계자는 "유럽이나 미국 등을 직접 가야만 볼 수 있는 세계 명품장미와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했다"며 "한꺼번에 관람객들이 몰릴 수 있어 걱정이지만 공간이 넓고 다양해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kwangju.co.kr

"세상의 모든 즐거움 이 안에 있습니다"

허남석 곡성군수

"청정 자연이 숨 쉬는 고장 곡성에서 가족, 연인, 친구 등과 함께 세계 명품 장미의 향연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허남석(58·사진) 곡성군수는 섬진강 기찻길 옆으로 펼쳐진 4만㎡의 대지에 흩뿌려진 1000만 송이 장미와 함께 사랑의 커플 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제3회 곡성 세계장미축제를 자신있게 내놓았다.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10일간 열리는 이번 축제는 섬진강 기차마을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얻은 곡성이 가을에 열리는 '심청 효 문화 대축제'와 함께 핵심 콘텐츠다.

"일단 곡성에 오시면 섬진강을 따라 기차·자동차·자전거·사람이 즐겁게 다닐 수 있는 15㎞의 둘레길과 힐링 숲길을 거닐 수 있고 전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증기기관차와 레일 바이크를 타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심청이야기마을, 두계외갓집체험마을, 가정 녹색농촌체험마을, 봉조 농촌체험학교 등에서 민박을 하면서 갖가지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습니다."

섬진강 기차마을은 지난해 초 미국 CNN이 '한국에서 가봐야 할 아름다운 50곳'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다.

허 군수는 "앞으로 기차마을에는 도깨비공원을 만들고, 압록유원지와 보성강 권역에 카누·카약 등 수상 및 강변 레저시설도 설치하는 등 관광객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켜나갈 것"이라며 "자연, 가족, 즐거움, 추억 등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곡성에서 지친 심신을 치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kwangju.co.kr

지난해 제2회 곡성 세계장미축제를 찾은 인파. 장미를 주제로 한 축제 가운데 관람객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약 홍삼은

북교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성인병 노화방지는
· 적절한 운동
· 마음에 평안
·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90,000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 주 환